

농수산물 6개 품목의 기능성 규명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지원하기로

농림수산식품부는 천일염, 청국장, 마늘, 보리, 콩 등에서 추출한 식품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위해 인체적용시험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

* 인체적용시험 : 식품 기능성분이 실질적으로 인체 내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임상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

○ 이는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으로 국내 농수산물의 소비처를 확대하여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,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함.

□ 이번에 연구할 각 식품 소재별 기능성 규명 내용은

- ① 천일염 : 혈압건강, ② 청국장추출농축액 : 면역 개선(아토피 경감), ③ 숙성 마늘농축액 : 혈중지질조절, ④ 보리 발효물 : 체지방 감소, ⑤ 검정콩펩타이드 : 체지방감소, ⑥ 이소플라본(콩) : 폐경기증상개선 등

○ 특히, 키토산 물질을 첨가한 천일염의

경우, 해외 대학(프랑스 디종대학교 심장의료센터)에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할 예정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천일염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이번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화를 추진할 식품기업은 영농조합, 중소벤처기업, 지자체 연구소 등 총 6개 기업입니다.

* 도울영농조합, 밀투밸런스, 바이오테크, 순창장류연구소, 농심, 정식품

□ 이번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도출될 전망이며,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기업의 기능성식품 개발 및 국내 식품의 우수성 규명을 통한 수출 확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